

팔정도부처님 불사 시주 동참 권선

건학108돌, 봉불50돌

「형동석가여래입상 개체불사」

동참 불자님은 청동판에 이름을 새겨드리며 정성껏 축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11월 22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영상 - “석굴암” (금강경 독송회)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나의 신행이야기
- 법 사 : 박상관(운영지원본부장)
-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1.29(토)	기타선율에 법문을 실어	지담스님 동림회 사무처장
12. 6(토)	대각전 원불봉안법회 (장소: 본교 이해림예술극장 2층)	원장스님
12.13(토)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사) 바른법연구원장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서울대공원 30주년 및 한국동물원 105주년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생명다양성을 위한
낙엽 밟기 명상 걷기대회**

동물과의 대화의 시간 갖기, 걷기명상,
음악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해요~

- 일 시 : 2014.11.23.(일) 14:00~17:00
- 장 소 : 서울대공원 동물원
- 진 행 : 마가스님, 김무한(불자가수)
- 신청문의 : ☎ 02) 3666-0260
- 참 가 비 : 3,000원(1인)

원장스님의 원력으로 정각원 사무실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 부서명 변경

「정각원 사무실」 ⇨ 「정각원 행정지원실」

▲ '실장직' 신설

신임 행정지원실장 고재선 *11.5일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신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학생 모집

“처염상정(處染常淨)”



연꽃처럼 탁하고 오염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청정한
품성을 간직하라

- ◎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융합योग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문화산업학과, 명상심리상담학과
- ◎ 접수기간 : 11. 14(금)~28(금) ◎ 면 접 : 12. 13(토)
- 문의 : 불교대학원 ☎ 2260-3096,8

보시동참

11월 17일 불전 공양

₩ 1,530,000원

법타스님, 강은희, 곽원기, 권복숙, 권혁채, 김광한,
김동연, 김종관, 김형근, 남창강, 박성진, 박정민,
서기원, 손동원, 안대준,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석희, 이수준, 이재철, 임진호,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최선자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90,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김소연, 김정연, 김주오, 김주연, 란승휘, 이경민,
이경원, 이광희, 이국진, 이미희, 이정준, 홍창수

공양 보시

- ❖ 불단과일 : 박상관 운영지원본부장
 - ❖ 불단 떡 : 김도영(심명자 보살님 자녀)
 - ❖ 대중공양 : 조운형(불교학부모회 임진영 보살님 자녀)
-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항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일(22일) 2시부터 법당에서 청년회법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660명 입니다.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1월 22일

제268호(週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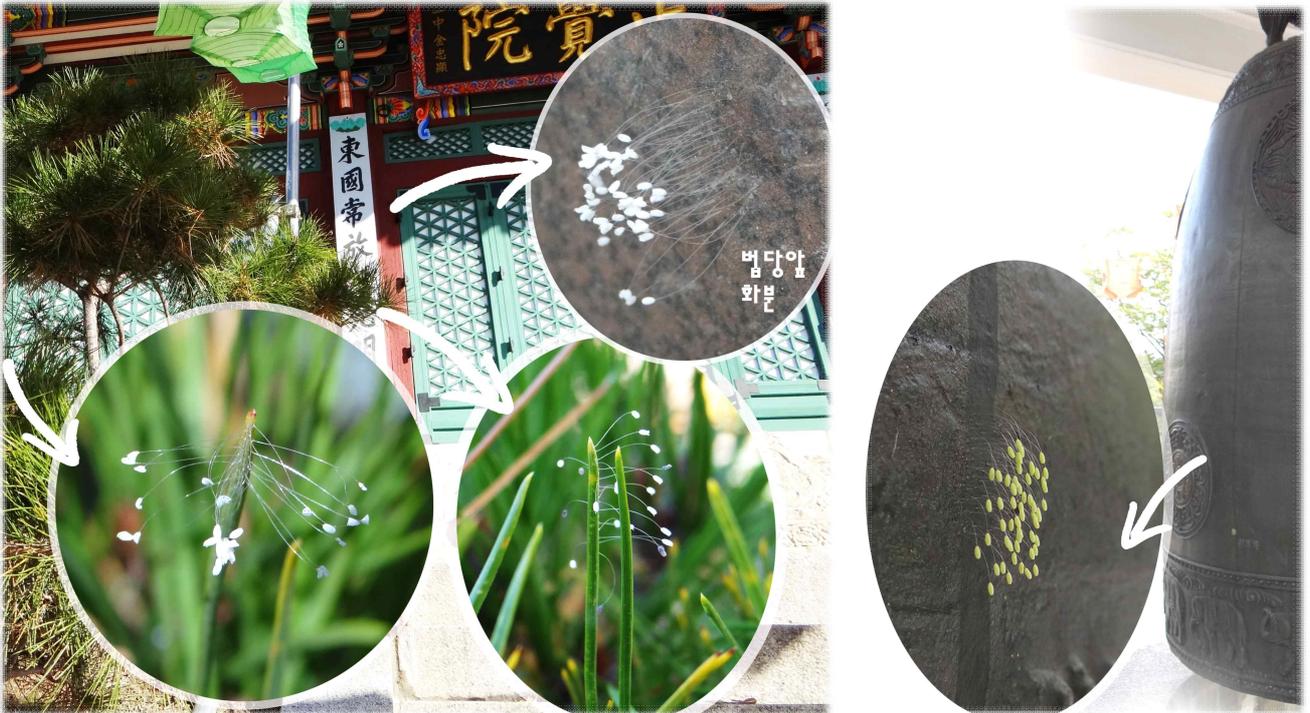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노여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니건자경」

건학 108돌 동국대에 나뉜 우담바라



보기 드문, 만나기 어려운 우담바라가 '동국의종'과 '법당 앞 소나무와 화분'에 나뉜 모습!
세속적으로 풀잡자리 알아라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에게 3000년 만에 한번 핀다는 전설의 꽃으로서 상상과 희망을 안겨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건학 108돌을 맞은 동국대와 불자들에게 더없는 기쁨이고 상서로운 행복일 것입니다. 〇_

학교법인 동국대 은석초등학교 수계법회



◎ 지난 17일(월) 정련 이사장 큰스님을 모시고 정각원에서 은석초등학교 5·6학년 학생(150명)들의 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의젓하게 수계 받은 은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불자 됨을 축하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건학 108돌에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KCC 정상영 회장(법학과 55학번) - 18억
익명의 노비구스님 - 10억

【 대각전 원불 봉안법회 안내 】

◎ 12월 6일(토) 「대각전」에서 願佛봉안식이 토요일 법회와 함께 봉행됩니다. 봉안불자는 물론, 일반 신도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2558. 12. 6(토) 10시~12시
- * 장 소 : 대각전(이해랑예술극장 2층)
- * 봉안신청 : 願佛(1佛) 100만원이상
- * 문 의 : 정 각 원 02)2260-3016~20
대외협력본부 02)2260-8992,3

고통의 바다(苦海)인가? 즐거운 동산(樂園)인가?

박상관(동국대 운영지원본부장)

▲ 행복해도 되는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지요?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 소박하지만 맛있게 차려진 점심상, 도반들과 나누는 법담...

이렇게 좋은 가을날 주말, 한가한 대학캠퍼스, 아름다운 법당, 넉넉한 스님과 좋은 사람들

제 고향은 천안입니다. 역대로 태풍이나 기근이 없는 이름 그대로 편안한 고을이지요. 저는 안양에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원아결정생안양, 그 안양이지요. 안양은 극락의 다른 말이지요. 제 직장은 부처님의 따스한 눈빛과 감미로운 미소, 그리고 자애로운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 동국대학교입니다. 79년에 입학한 이래로 계속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병상이지만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고, 7남매나 되는 형제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공경하며, 아이들 역시 반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호사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되며, 직장에서도 행실이 나쁘다거나 업무능력이 모자라 남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행복하게 맞지요? 가끔 제가 사는 이 세상이 극락정토는 아닌가하고 자문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도 우리 삶이 고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고행이 아닌 극락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요?

유명한 우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행인이 들판에서 코끼리에게 쫓기다가 우물을 발견해서 늘어 내려진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매달렸는데, 위를 보니 코끼리가 노려보고 있고, 아래를 내려 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다시 보니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면서 자신이 잡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고 있더라,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입으로 달콤한 꿀이 떨어지고 있고, 그 꿀의 달콤한 맛에 취해 당장 제 죽을 줄을 모르더라는 그 행인처럼 제가 바보는 아닌가요? 만약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정진하고 있는가?

물론 정진해야겠지요.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은 줄이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은 생각에 엉뚱한 사고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세상만물은 항상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해 틈틈이 수행해야 하겠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면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송담스님의 법문을 들곤 합니다. 한국불교는 기본적으로 선불교를 지향합니다. 깨달기 위해서는 참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게으르고 과문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저 분은 깨달으셨구나, 깨달으신 분이래 덕도 높고 욕심도 없으시며 지혜도 높으시구나, 속세에 살더라도 틈틈이 참선하면 저 분의 십분의 일이라도 이루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의에 저항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삶이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부터 절을 많이 했습니다. 절을 하고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최소한 가부좌 틀고 앉아 졸음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염불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느껴졌지만 본격적으로 염불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불교 관련 서적을 즐겨 읽기는 하지만 간경이라고 할 만하게 경전을 본격적으로 읽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학창시절, 또는 그 이후 친구들과하고 그룹으로 한글경전을 읽으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열반경이나 유마경 등의 몇몇 경전을 빼놓고는 제대로 경전을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 방대한 분량의 아함경은 도무지 중언부언하는 것은 물론 어렵기까지 해서 수차례 시도하다가 그냥 서가에 장식 삼아 모셔두곤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좀 더 많이 경전을 읽고 싶습니다. 덧붙이면 그간 저는 매해 초가 되면 저 혼자 삼칠일 또는 백일을 정하고 매일 108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할 때마다 무릎이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경하는 것으로든, 간경하는 것으로든 비중을 조금씩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선도 해보겠습니다.

▲ 현세정토 구현을 위해

겉으로만 보면 요즘 세상은 극락에 다름없어 보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맛있는 먹거리가 지천에 널려있고, 화려한 의복, 대궐 같은 집들, 깔깔대고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환락으로 가득한 거리 등 물적으로만 보면 극락도 이보다 크게 더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극락정토는 내세에 가는 곳일 수도 있고 현세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락정토는 지나친 욕심과 터무니없는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세상, 각각의 사람들이 보시와 지계 인욕 등의 육바라밀과 십선법 등을 행하면서 바르고 청정하게 생활하는 세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극락정토가 구현될 수는 없습니다.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상의상존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공업중생들도 청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선각자들이 그래왔듯이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은 물론 크고 작은 폭력과 노약자 및 장애인, 타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차원에서는 바른 생각으로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사회차원에서는 차별과 편견, 질시와 폭력으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없고, 서로 배려하며 헌신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세상, 이러한 세상이 진정한 극락정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웠던 일, 안타까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다. 죽음이나 이별이나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하지만, 제가 미래에 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며 남은 생을 허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지금까지 잘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잘살아갈 것이라 믿으면서, 힘닿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른 몸가짐으로 살겠습니다. 틈틈이 정진하되 지나치게 진지하지는 말고, 착하되 바보스럽게는 말고, 욕먹기보다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날들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